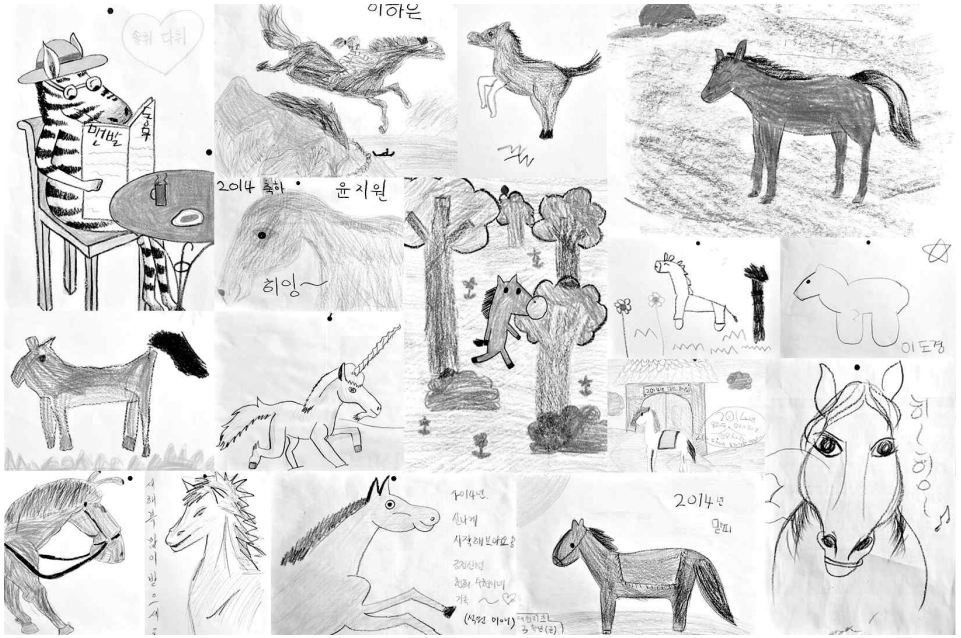
맨발동무도서관

소식지 제32호
2014년 3월 31일
www.maenbal.org

펴낸곳: 맨발동무도서관 펴낸이:고선일 주소:부산시 북구 화명2동 양달로64 전화:051-333-2263



작은전시회 '말하는 대로'에서 아이들이 그린 말그림입니다.

수 · 목요일 : 오전 10시-오후 6시
금요일 : 오전 10시-오후 9시
일 · 토요일 : 오전 10시-오후 5시
(월 · 화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이용안내

1.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7세 이하의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옵니다.
3. 단체 이용 시 미리 연락 바랍니다.

도서대출, 반납안내

1. 책을 빌릴 때는 대출증을 가지고 옵니다.
2. 한 번에 다섯 권씩 빌릴 수 있습니다.
3. 빌려간 책은 2주(14일) 안에 가져옵니다.
4. DVD는 1주(7일) 동안 빌려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문을 연지 어느 덧 8년. 공간도 넓어졌고, 책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진행되고, 사회적 환경들이 많이 바뀌면서 평일에 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금, 토, 일요일 이용률이 늘어났지요. 더불어 주말 도서관 이용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2013년 2월부터 이틀(월, 화)을 쉬고, 일요일 이용시간을 늘리는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연속으로 이틀을 휴관함에 따라 상대적인 불편에 대한 여러 목소리도 들려왔지만, 반면에 주말 오전부터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대로 좀 더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해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는 맨발동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자료

자료수집

홈페이지로 신청하신 목록을 비롯하여, 어린이책 및 어른책 수서모임을 통해 선정된 자료를 중심으로 매 달 약 150여권의 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총 1,161개(도서 1,074권, 비도서 87개)의 자료를 구입하고, 400여권(27종)의 연속간행물이 들어왔으며, 기증받은 600여권의 책 중에 200여 권의 책을 등록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새로운 그림책들이 별로 없어 수서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른문학 대출율이 높아지는 대출흐름에 맞추어 2013년에는 그림책과 아동문학보다 어른책에 비중을 두어 수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오래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교체하고, 스테디셀러가 되는 그림책을 위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책을 꼼꼼히 살펴보며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맨발동무도서관의 자료는 도서가 22,411권, 비도서는 973개, 연속간행물은 1,299권입니다.

자료정리, 보수 및 폐기

서지입력, 책싸기, 라벨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2013년에는 총 1,767권(개)의 자료를 정리하였고, 385권의 책을 보수하여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장서점검을 실시하면서 파손되거나

분실된 자료 300여 권을 제적하였고, 장기 연체된 책과 2010년도 과월호 잡지 등 총 400개가 넘는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하였습니다. 제적된 자료 중에 복본이 없는 책들은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나누미 및 청소년 자원활동가들이 수시로 서가를 정리하고 있지만 제자리에 없는 책들이 많아 종종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대출

2013년 모두 243일 동안 도서관 문을 열고, 121일을 쉬었습니다. 한 해 동안 985명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회원수는 모두 8,233명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총 대출권수는 36,921개로, 하루 평균 152개, 월 평균 3,077개의 자료가 대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대출된 영역은 문학(60.8%)인데, 특히 그림책이 12,795권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고, 아동문학은 5,704권, 어른문학은 4,801권이 대출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아동문학 대출율은 줄어들고, 어른문학 대출율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대출된 영역은 DVD(3,504개)와 만화(3,067개)가 포함되어 있는 예술(19.1%)입니다. 뒤를 이어 자연과학(5.8%), 사회과학(4.3%), 역사(3.3%) 등의 순으로 대출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머무르며 책을 보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가족단위 이용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방학 이용률이 눈에 띄게 늘어 주말 도서관의 풍경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등록 1,761개	**총장서** 24,683권
2013 신규회원 973명	**총회원** 8,233명
대출자수 11,317명	**일평균 대출자수** 47명
대출권수 36,921개	**일평균 대출권수** 152개

도서관의 문화활동

일상적인 책 읽어주기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도서관이 문을 연 날이면 날마다 **4시 책읽어주기, 하루를 닫는 '잘가요~ 낭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림책부터 시집, 에세이까지 다양한 책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책을 읽고 놀아보는 **달강달강**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오랫동안 아기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2013년 5월을 끝으로 긴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유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달강달강에 참가하는 유아들의 월령도 돌 이전으로 낮아져 책읽기 활동이 어려워진 까닭입니다.

책문화공연

2013년 한 해에도 다양한 연령의 이용자들이 문학작품을 빛그림으로, 노래로, 이야기로 구현해보는 책문화공연을 만났습니다.
도서관의 최장수 책문화 프로그램인 **찰방찰방**은 2013년부터는 달마다 2, 4주 토요일 오후 4시에 102회부터 123회까지 22회 진행되었습니다. 주말 가족 이용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열람실에서 찰방찰방을 열어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달빛극장은 청소년 이상 어른들을 위해 긴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으로 2013년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야기 방에서 진행되었고, 〈오필리아의 그림자 극장〉 외 총 10편의 그림책을 빛그림으로 만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 **유아한 반나들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초등학교 한반나들이**에 북구와 경남지역의 18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4개 초등학교 34개 반 친구들이 도서관에 다녀갔습니다.



다양한 전시회와 낭독회

주제별로 다양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 2013년 **작은 전시회**는 〈학교이야기〉, 〈최민식 추모 사진전〉,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를 주제로 3회 진행되었습니다. 책전시회와 더불어 공동체상영, 밀양송전탑 현장을 방문해 보는 등 다양한 활동들도 함께 했습니다.
도서관 독서동아리 모임 책마녀, 책살림, 책꼬시랭이가 준비한 **밑줄낭독회**가 〈뜬금없는 만화방〉, 〈다시, 어린왕자를 만나다〉〈어려운 책, 싫은 책, 재미없는 책〉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책전시회와 낭독, 이야기가 있는 2013년 **북콘서트**는 〈부모님 전상서〉라는 제목으로 불혹의 나이를 넘어 이제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부모님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박창희 기자, 김하기 작가, 이강기 마술사, 영산마루 음악패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영화보기

매달 2, 4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맨발극장** 13편, 1월 겨울방학 기간과 7월 여름방학 기간에는 **맨발영화제** 6편, 라면을 먹으며 야외에서 즐기는 라면극장 2편, 영화의전당에서 열어주신 **찾아오는 영화관**에서 2편, 어른들을 위한 **오땅극장**에서 1편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지역 단체들과 연대한 **공동체 상영**도 2회 열렸습니다.

문학기행

7월에는 〈오월의 달리기〉라는 책을 읽고 '그 해, 오월의 광주를 만나다'란 주제로 초/중등 문학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김혜린 작가와 함께 책 속 배경지를 돌아보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월에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가자 40여명과 함께 〈섬진강 그림여행〉 오치근 작가를 찾아가 작업실을 둘러보고 섬진강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연

2013년 **작가 강연**은 청소년 작가, 그림책 작가, 시인 등 다양한 방면의 작가들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김중미 작가, 이현 작가, 서현 작가, 송경동 작가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생활 속 소소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평상너머**는 4회 진행되었습니다. 양산마을카페 소소봄의 이우석님,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님, 마술사 이강기님, 놀이전문가 최문경님이 평상너머의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간행사

2013년에도 도서관과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을 단체들이 때로는 마음과 정성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소박한 공연으로, 저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마을에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소통하고 나누는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2월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예비초등학생도서관 나들이**가 열렸습니다.
7월에는 **여덟 살 생일잔치**가 열려 3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김밥을 싸서 나누어 먹고 '누구나 공연'으로 축하하며 즐겁고 흥겨운 잔치한마당을 벌였습니다.
한여름 밤 도서관에서 밤새 책을 보고, 서가 사이에서 잠도 자며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추억을 만들었던 **도서관에서 하룻밤**이 8월에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와요데이**를 4회 진행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끝내고 도서관에 온 청소년들과 와플과 요구르트, 레모네이드와 떡볶이 등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소년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2013년에 새로 시작한 〈삘〉, 〈골방수다〉, 남자들의 동아리〈里仁〉과 기존에 모임을 진행하고 있던 〈책꼬시랭이〉, 〈책마녀〉, 〈책살림〉, 〈나우리〉, 〈그리미〉 총 8개의 독서동아리와 답사동아리 〈시간여행〉, 영화동아리 〈씨네북〉 등 다양한 어른동아리가 활동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동아리는 초등동아리 〈새싹〉, 초등독서동아리 〈그 책 좋아〉가 활동했습니다.

교류사업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친구도서관 지원사업

2007년 느티나무도서관학교 참가를 계기로 맺어진 인연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친구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이어졌고, 2013년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재단을 만난 것은 맨발동무로서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6년 동안의 아낌없는 지원(사서인건비, 자료구입비, 장서개발강좌 등 교육, 공동워크숍, exlis 전산프로그램 사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맨발동무는 전담인력의 역량강화를 꾀하였고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철학정립과 문제제기의 끈을 놓지 않고 늘 함께 고민하는 멋진 동지였습니다. 앞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로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며 또 다른 형태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꾸는 사서들(부산지역 작은도서관 사서모임)

10개 도서관 12명의 사서활동가들이 매월 정규모임과 공부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은 '청소년 이해하기'란 주제로 청소년 관련 책과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 한해였습니다.

각 도서관이 거의 1인 체제라 모임참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으나,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 힘과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되고, 이후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모임으로 꾸려가고자 합니다.

외부 사례발표 및 강연

2013년에는 금정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연제구 희망을 위한 워크숍, 2013 작은도서관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남구사서도우미교육과정 등 연합강연에서 맨발동무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했고, 대전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과 대구 한들마을도서관, 대구 여성친화도시 포럼, 전포복지관 도서관학교 등에서 마을도서관을 통한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문화, 예술을 매개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꿈꾸기'란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총 20회의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 방문 및 견학

익산시 작은도서관협의회 등 49 곳에서 맨발동무를 다녀가셨습니다. 도서관 활동가들,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언론기관의 취재, 지역의 자발적인 동아리 모임 등 찾아오신 분들도 다양하고, 나눈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간혹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찾아와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황하신 경우도 있을 듯하여 조금은 죄송합니다. 2013년에는 지역 내 중학생 동아리, 한반 단위로 중학생 친구들이 도서관 견학을 와주어 이후 계획적인 중학생 나들이를 계획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연대사업

201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도서관 자원활동가와 마을유관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4월~12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역사를 인문학과 사진예술을 매개로 아카이브하고, 확대 및 재생산하여 마을사람들이 마을을 알아가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고, 마을공동체에 작은 씨앗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라는 책을 출판하였고, 마을사진 전시회를 갤러리 '자인'에서 열어 많은 마을사람들이 사진과 함께 마을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맨발동무의 마을도서관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후 마을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할 경우 좀 더 체계적인 전망을 가지고 전문적인 집단과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우리는 찰방찰방 예술단'

읽고, 보고 듣고, 말하고,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학을 통합적으로 체험해보는 '우리는 찰방찰방 예술단'을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꾸렸습니다. 3월~12월 까지 1기 20명, 2기 23명의 청소년, 부모 참가자들이 몸으로 놀아보기, 옛이야기 맛보기, 빛그림 제작 및 공연, 커다란 책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찰방찰방 공연을 진행하였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이웃시설(정화양로원, 평화의 집)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찰방찰방을 진행하며 함께 나누는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토요일마다 도서관은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어 활기찼고,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책사회)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책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독서문화활동을 격려하고 연령과 지역을 아우르는 고른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책사회에서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맨발동무는 부산지역 동아리 길잡이 역할을 맡아 초기에 선정된 5개의 동아리와 새로 신설한 10개의 동아리를 이끌었습니다. 자유롭고 일상적인 책읽기와 책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기회였으며, 이후 동아리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어지길 바랍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3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사업'

2월부터 11월까지 총 34회 국공립 인천어린이집 30명의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월 1회 도서관 나들이를 통해 도서관 일상을 경험하였고, 월 3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다양한 책읽기와 단체대출, 바깥도서관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일상적인 책읽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진행 담당자에게도 긍정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웃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평화의 집'으로 일주일에 한 번 책읽어주기를 진행했고, 그림자극과 찰방찰방 공연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자원활동가 김수미, 이수정님이 2년째 함께 하시며 평화의 집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던 동원복지관 내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는 2013에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지만, 후속작업으로 달마다 마지막주 금요일에 찾아가는 책읽어주기와 단체대출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이웃한 정화양로원과 그린경로당에도 매주 목요일 오후에 책읽어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정기적인 찾아가는 찰방찰방은 진행하지 않고 공연요청이 있었던 함양 병곡초등학교 외 5개 단체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마을 연대 사업

연초에 마을단체장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시

작으로 어린이날 깜짝 잔치를 마을단체들이 같이 열었고,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푸른바다 아이쿱생협, 맨발동무가 이야기꾼의 책공연 〈종이봉지공주〉를 준비하여 많은 마을사람들이 공연문화를 즐겼습니다.
〈나비와 바다〉, 〈밀양전〉 상영 및 감독과의 만남을 공동 진행 하였으며, 단오한마당과 대천천 환경문화축제에는 예년과 같은 바깥도서관 형태로 참가했습니다.
'무위당 글그림전' '찾아오는 음악회' 등 마을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도 이어졌습니다. 영화의전당의 '찾아오는 영화관'은 색다른 선물이었고,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교류, 연대의 필요성과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홍보활동

2013년에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다'라는 목표로 스토리가 있는 도서관, 세심하고 구체적인 홍보, 피드백이 있는 홍보, 도서관 일상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홍보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웹사이트 〈www.maenbal.org〉

도서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접속하여 맨발동무 소개, 자료실, 서재, 참여마당, 요즘 맨발동무에선 등의 게시판을 통해 도서관의 일상과 행사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대내홍보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사랑해요 맨발동무도서관' 도전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로 다섯 번째 도전을 진행해 2013년 도서관 이용시간 변경을 적극 홍보하습니다.
대출 반납대 앞에 매월 작은 일정표를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행사. 휴관일, 동아리 모집 등의 소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외홍보

2013년 맨발동무도서관은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북구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를 통해 도서관 문화행사가 소개되었고, 부산 KBS, 부산 KBS 라디오 등에 도서관 소식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천리 초등학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사례집, 문화기획공간 '통', '또까또가', 오지필름, 부산문화재단, 부산시민세터, 작은도서관 등 여러 기관의 소식지와 운영사례집에 도서관이 소개되었습니다.

소식지

맨발동무도서관의 소식과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식지가 통권 28호부터 31호까지 총 4회 발행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사람

상근실무자

2013년은 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개관 때부터 7년 동안 도서관을 지켜 오셨던 임숙자 관장이 도서관을 떠나고, 그동안 사서로 활동해 오시던 고선일님이 새로운 관장으로 첫 해를 보냈습니다. 더불어 새식구 3명이 반상근으로 함께 하며 관장, 사무국 2명, 이용자서비스팀 2명, 기획홍보팀 3명 등 처음으로 팀을 꾸려 운영을 해보는 새로운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연 1회 운영연수, 월 2회 운영위 회의, 연 16회 직무연수, 연 19회 공부모임을 하며 아카이브, 모금, 청소년 등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마을도서관에 대한 그림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자원 활동

2013년에 많은 분들이 자원 활동으로 도서관 구석구석에 손길을 더해주셨습니다. 어른자원활동가 98명이 4,947시간 50분, 어린이·청소년 자원활동가 80명이 1,687시간, 총 199명이 6,634시간 자원활동을 하셨습니다. 3월과 10월에 열린 어른자원활동가 새식구맞이를 통해 11명이 새로 자원활동을 시작하셨고, 3월, 7월, 12월에는 청소년 자원활동가 새식구맞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활동한 자원활동가 수는 줄었지만 자원활동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이는 여름 두 달 동안 도서관 냉방비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진행했던 팥빙수팀의 활동시간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2013년에도 독서동아리 '책꼬시랭이'에서 4시 책읽어주기를, 어린이책 시민연대에서 어린이책 수서모임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자원활동 영역	2013년	
	인원	활동시간
열람대출 및 서가정리	40	1,087시간
수서 및 자료정리	31	1,169시간50분
책읽어주기	6	39시간
책문화 프로그램 -찰방찰방, 달빛극장 등	16	368시간30분
찾아가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찰방찰방	5	72시간
지원사업 지원	12	270시간
일상 문화프로그램 -맨발극장, 커다란책 등	39	1127시간30분
연간행사-생일잔치 등	34	148시간30분
청소년/어린이 자원활동	80	1,677시간
가족자원활동, 기타	23	675시간 30분
총합계	178	6,634시간 50분

※인원 합계는 자원활동 영역별로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찰방찰방 예술단〉, 〈커다란 책〉, 〈책보수〉 3개의 자원활동 동아리가 주마다 정기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책공연 동아리 〈이야기봄〉에서는 1년 동안 준비하고 연습하여 11월에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는 공연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자원활동가와 함께 하는 외박극장을 열어 바쁜 자원활동을 잠시 놓고 영화보기로 도서관을 오롯이 즐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에는 2013년 자원활동가의 날이 열렸습니다. 금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바탕 몸놀이로 한 해 활동의 노고를 풀어보았습니다.

회계결산

개인후원

387명이 도서관에 39,317,71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 6백만 원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한 달 후원금은 330만원으로 전체 도서관 수입의 21%에 이릅니다. 정기후원자는 356명으로 한 달에 약 312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새로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분은 75명, 후원금액은 1,241,000원으로 한 달에 6명 이상 신규 후원회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증액해 주신 분이 5명, 157,000원, 이사 등으로 정기후원을 중단하신 분이 6명입니다.

큰걸음 후원, 단체후원

2013년에는 노국래님, IMS Corpotation과 (주)두영씨앤알, 초읍 가족사랑 요양병원이 매달 10만원 이상을 기부해주시는 큰걸음 후원회원으로 새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현재 큰걸음 후원회원으로 3명의 개인과 8개의 기업과 단체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큰걸음 후원금은 총 16,480,000원입니다.
지역에서는 푸른바다 아이쿱 생협과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참빛학교 학부모회가 도서관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2008년부터 인터파크 도서가 느티나무도서관재단을 통해 매월 90만원을 지원받았던 친구도서관 지원금이 2013년 12월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재단과의 아름다운 인연이 맨발동무도서관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에 이어 부산시에서 사립공공도서관 운영

비로 3천만원, 영도 남항시장 특성화사업비 9백 5십만원을 보조받아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한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문학콘서트-눈으로, 소리로,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로 3백만원,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한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우리는 찰방찰방 예술단'으로 2천 2백만원, 201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로 천 5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활발한 문화활동을 펼쳤습니다.

〈2013 회계결산〉

수 입		지 출	
항 목	2013.1.- 12.	항 목	2013.1.-12.
이월금	13,139,319	**사업비**	
후원금		-서가 및 설비	2,052,400
-한걸음 후원	38,452,000	-장서구입비	13,659,310
-큰걸음 후원	16,480,000	-영도남항시장특성화사업	15,356,200
-비정기후원금	3,068,03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1,325,540
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4,997,250
-느티나무도서관재단	10,800,000	-부산문화재단	3,000,000
-부산시	30,000,000	-프로그램비	22,408,520
-영도남항시장 특성화사업	9,500,000	-소식지 외 홍보비	2,088,600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5,000,000	-2012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18,84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2,000,000	**관리운영비**	
-부산문화재단	3,000,000	-인건비	55,514,080
-강연료 및 원고료	12,454,960	-지급임차료	6,000,000
-기타 잡수입	4,338,861	-수도광열비	6,970,257
-차입금	5,000,000	-통신비	1,589,840
		-여비교통비	3,839,993
		-제 운영비	9,625,716
		지 출 합 계	178,446,551
		통 장 잔 액	4,786,619
수 입 합 계	183,233,170	합 계	183,233,170

2013년 한 해 동안 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 자원활동가 총 98명 4,947시간 50분

강동임 4시간, 강재은 28시간, 강정은 4시간, 강현미 105시간, 권순용 244시간, 권태령 2시간 30분, 김경희 3시간 30분, 김금란 102시간 30분, 김란 254시간, 김명남 11시간 30분, 김미란 74시간 40분, 김미숙 294시간 30분, 김미영 19시간, 김민선 2시간 30분, 김민아 12시간, 김민정 18시간, 김민지 49시간, 김상영 199시간, 김선옥 7시간, 김소미 3시간, 김수미 167시간, 김양숙 4시간, 김영미 26시간 30분, 김영애 100시간 30분, 김영임 57시간 30분, 김예빈 69시간, 김옥자 4시간, 김유리 22시간, 김유진 4시간, 김재수 18시간, 김정미 17시간, 김태윤 17시간, 김혜린 30시간, 남윤경 11시간, 노미애 4시간, 노유진 16시간, 박경선 129시간, 박경영 11시간 30분, 박민경 73시간 30분, 박선영 11시간, 박성환 20시간, 박수진 13시간, 박원규 15시간, 박은비 21시간, 박찬 3시간, 백시내 73시간, 백자현 16시간, 서상진 15시간, 서의숙 2시간, 서정혜 17시간 30분, 성은아 7시간, 손희숙 61시간 10분, 송현복 2시간, 신건우 2시간, 신준기 2시간, 심유미 1시간 30분, 안향신 162시간 30분, 안현주 120시간, 양명순 18시간, 오선하 4시간, 우종헌 4시간 30분, 유복술 75시간, 이강기 4시간, 이경진 5시간, 이경화 25시간, 이미영 32시간, 이민아 1시간, 이선민 9시간, 이선희 43시간 30분, 이수정 123시간 30분, 이연옥 5시간, 이은영 31시간, 이준영 13시간, 임창영 192시간, 장미정 30시간, 장민규 18시간, 장윤정 123시간, 장준영 107시간, 장희령 146시간 30분, 전선경 88시간 30분, 정애자 156시간 30분, 정여진 21시간, 정철 97시간 30분, 정현옥 44시간 30분, 조명희 206시간 30분, 조아라 41시간, 조영화 2시간, 조은정 30시간, 조준희 41시간, 조협 1시간, 주현자 2시간, 최성영 30분, 최소희 14시간 30분, 최숙인 36시간, 최윤숙 70시간, 하경화 123시간 30분, 한미나 13시간 30분, 홍세진 164시간 30분

어린이청소년 자원활동가 80명 1,687시간

강진구 33시간, 강호준 1시간, 고민지 15시간, 권혁준 21시간, 김가빈 1시간, 김경민 33시간, 김경임 75시간, 김고은 15시간, 김상현 42시간 50분, 김성욱 3시간, 김수빈 12시간, 김수현 30시간, 김자윤 47시간, 김재호 12시간, 김지원 6시간, 김채운 20시간 30분, 김태현 23시간 40분, 김해인 15시간, 김효영 3시간, 박누리 13시간, 박성훈 34시간, 박소희 12시간 45분, 박예빈 14시간, 박주은 28시간 30분, 박진호 13시간, 박희경 13시간, 배소미 10시간, 서상화 19시간 30분, 신유진 48시간 30분, 안유주 10시간 30분, 안혜선 77시간, 양현영 20시간 30분, 여지선 9시간, 오세찬 12시간, 오영림 48시간, 오용수 6시간, 오채린 37시간, 오태린 33시간, 윤규빈 51시간 30분, 윤소영 45시간, 윤은미 1시간, 이동진 21시간, 이성훈 24시간, 이솔미 4시간, 이수현 22시간 30분, 이시진 7시간, 이연경 45시간, 이연주 51시간 30분, 이지나 12시간, 이지현 27시간, 임민세 10시간, 임지환 2시간, 임진주 11시간, 임채훈 11시간, 임혜수 4시간, 장용준 2시간, 장은서 2시간, 장인석 12시간, 전효원 17시간, 전희원 16시간, 정가람 10시간 30분, 정가은 3시간, 정유진 14시간, 정재은 9시간, 정주영 19시간 30분, 조성우 3시간, 조준우 81시간, 조해우 34시간, 최수정 44시간 30분, 최승희 29시간, 최예로 26시간, 최인서 7시간, 최재은 34시간, 하현승 20시간, 하효림 10시간, 홍지형 11시간, 황소현 12시간 30분, 황인서 39시간 30분, 황인영 7시간 45분, 황지나 5시간



그림책 달력을 만나보세요



나눔자리를 지나 만화방으로 가기 전 도서관 한 쪽 벽에 커다란 달력이 붙어있습니다. 그 달력의 이름은 바로 '그림책달력 365'입니다.

그림책달력이 시작된 후로 도서관은 더 많은 이야기 소리들이 샘솟아 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자신과 만난 사연 많은 이야기 소리부터 그림책을 보고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부모님들의 소리, 친구들과 서로 자기가 더 그림책을 많이 읽었다며 자랑하는 소리, 그리고 각자의 느낌을 속닥속닥 나누는 정감어린 소리들.

그림책달력이 붙어있는 바로 옆 나무집에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쌓아두고 읽는 모습이 마치 커다란 고목나무 안에 요정들이 둘러 앉아 노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노닐다가 나눔 자리로 와서 달력 속의 그림책을 읽어보았다며 자기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메아리는 어떤 느낌이었냐며 묻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그림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아이와 어른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법 같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같은 책이지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다르고 서로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 것을 보면 그림책마다 주인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4시 책읽기 시간에 '그림책달력 365'에 나온 그림책을 가지고 함께 읽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법의 순간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럴 때면 기분 좋게도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책을 빌려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림책달력 365'가 1월에 시작되어 이제 두 장을 넘겼습니다. 저에게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까요? 고맙고 감사하게도 찾아왔습니다. 내 속의 어른아이를 만나게 해준 〈눈물바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있을 때 나타나 힘이 되어준 〈하지만하지만 할머니〉, 나의 결심에 확신이 필요한 순간에 책꼬시랭이 동아리 박수진씨가 추천하여 짠~ 하고 나타난 〈나는 작은 배의 용감한 선장〉. 이 세 권의 그림책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설렙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마법 같은 그림책이 다가올까?

오늘 달력 속의 그림책은 또 누군가에게 마법처럼 다가갈까?

1년 365일, 24시간의 그 시간 속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마법같은 그림책을 만나는 순간이 있기를 오늘도 마음 속으로 빌어봅니다.

메아리

고미숙을 따라갔던 나의 책읽기



가장 먼저 고미숙을 알게 된 계기가 된 책은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였다.

뭔가 가슴 떨리는 끌림이 있었다. 고미숙과 그 속에 소개된 '수유너머' 사람들에 대한 끌림. 공부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삶이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나를 빠져들게 했던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의 삶의 방식인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도구로서의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공부를 통한 삶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졌다.

이후 고미숙이 감탄하고 있었던 인물, 박지원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다이나믹하면서도 매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활동했던 18세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나에게 그 시대 인물인 박지원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호기심이 발동되었다. 고미숙은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통해 박지원의 얽매이지 않는 삶,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으로서의 자유로움을 이야기 하고 있어 〈열하일기〉를 직접 읽고 싶어졌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아낙네들 몇이서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난다. 열하일기를 통해 박지원은 엄청난 호기심과 체력을 가진 사람, 알고 싶은 바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들과 걸림 없이 친구가 되는 사람, 여행의 전 과정이 공부였고 삶 그 자체였던 그리고 그 경험을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당시의 틀에 메이지 않는 새로운 문체로 서술했던 사람. 그 문체를 문제 삼은 왕의 꾸지람과 회유, 협박에도 자유로웠던 사람. 고미숙과 수유너머 사람들은 박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듯도 하고. 나도 이 매력적인 인물인 박지원에 대한 다른 책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라는 박지원의 편지글을 모아놓은 책을 통해 박지원의 인간적인 면, 즉 형제간의 우애, 소소한 자식 사랑, 그리고 뒤늦은 시기에 잠깐 했던 지방 관리 생활에서 치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박지원은 무엇을 위해 거대한 목표를 정하고 장엄하게 사는 것이 아닌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창의적으로 한편으론 심각하지 않게 재미롭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탈 중세의 과제를 안고 근대를 지향해야 했던 18세기에 해답의 한 면을 던져 주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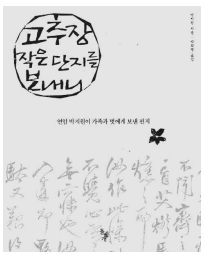
계속해서 고미숙의 글쓰기에 관심이 갔었고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겨 좌지우지 되는 것의 문제점을 '위생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적하고는 몸에 관한 공부를 '동의보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기에 그 또한 출판을 기다렸었다. 몸이 늘 무거웠던 나는 나의 몸에 대한 공부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하여 〈동의보감〉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을 잘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몸이 소우주인지라 자연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것 등 단순한 몸과 병에 대한 의학서가 아니라 동양사상의 총체인 것 같았다. 몸과 우주 그

속에서 삶의 비전을 찾아가는 그러하기에 그렇지 못한 현 사회를 자신 있게 비판하는 모습이 명쾌했었다.
우주의 운행에 관심을 가지니 자연히 역학으로 공부가 옮겨지게 되고 그리하여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여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당연히 난 급하게 읽어 내려갔다. 어차피 자신을 구원하는 건 스스로 밖에 없다, 그리하여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사주명리학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음양오행은 자연과 나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멋진 틀이자 궁극적으로 자기를 해방시키는 일과도 관련이 있다는 관점인 것 같았다. 사주 명리학에 관심을 잠깐 가지면서 나는 한 때 이런 호기심이 생겼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지성, 정약용과 박지원의 사주는 어떻게 다를까? 문체나 생각하는 방식이 참 다른 것 같고, 같은 시기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서적에서 서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들의 사주에 해답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알기라도 한 듯이 〈두개의 별, 두개의 지도〉라는 책을 출판하여 두 사람의 사주를 통해 그들의 삶을 설명하니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는 고미숙을 통한 책읽기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의 삶이 자유롭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들이 대단한 것은 바로 공부가 삶을 바꾸는 수행의 방법이었다는데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난 여전히 어설픈 독서가인가? 앞으로 여전히 그녀의 글쓰기가 궁금해진다.

어른수서모임 안현주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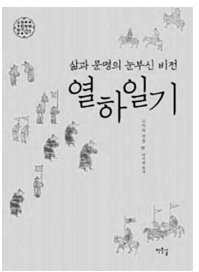
•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북드라망 / 2012)
•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 연암 박지원이 가족과 벗에게 보낸 편지 (돌베개 / 2005)
•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 (북드라망 / 2012)
•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북드라망 / 2012)
•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북드라망 / 2013)
•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작은길 / 2012)
• 두개의 별 두개의 지도 (북드라망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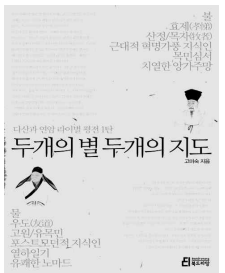














'커다란책은 나만의 놀이터'

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나의 모습들을 정말 많이 찾아낸 것 같아요. 동아리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면서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꿈도 다시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커다란책과 만나다



저는 장수지예요. 36살이구요. 커다란책 동아리에 와서 첫 아이를 얻고,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한 행복한 엄마입니다.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것은 화명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임 새 멤버로 경화씨라는 분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그림을 조금 그리고 관심 있는걸 아시고는 커다란책을 권하셨어요. 그렇게 커다란책과 만나게 되었지요.



저는 박경선이구요. 항상 꿈을 찾고 싶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책을 만들고 싶어서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구요, 어떤 모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책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전문적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기를 한 2년쯤 하다가 나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정애자라고 해요. 나이는 마흔 셋입니다. 저는 원래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을 좋아 했는데 배울 수 있는 때를 놓쳤어요. 그렇지만 그림은 계속 마음에 남아 있

었죠. 오가면서 우연히 커다란책 동아리가 모여서 커다란책을 만드는 모습을 봤는데, 그만 반해 버렸어요. 너무 멋져보였거든요. 저도 재능이 있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였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말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름은 조명희예요 나이는 말할 수 없어요. 비밀이예요. 동아리 친구들이 다들 왕언니라고 불러요.

저는 도서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저것 생각하던 중에 커다란책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제가 '뽕'갔어요. 내가 특별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미술에 대해서 잘 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참 재미있을 것 같아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림이라는 것을 아주 어릴 때 잠깐 이게 참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커다란책을 보면서 그걸 다시 기억하게 된 거죠.



저는 김미숙이구요, 나이는 많아요. 마흔 이후로는 나이를 별로 안 세게 되더라구요. 말하자면 커다란책 동아리 초기멤버라고 말할 수 있어요. 6년 전에 당시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들이 커다란 책을 한권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우리 도서관도 자원활동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한번 커다란책을 만들어보자는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자원활동가들이 모여서 커다란책 만들기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4명이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도서관에 공간이 없어서 집에서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커다란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자랑하고 싶은 책, 나는 늘 커다란 책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랄까 만족으로 가는 즐거움의 길이라고 할까? (박경선)

획일화된 책에서 튀어나와서 실제로 볼 수 있고 물감냄새를 맡을 수도 있으며, 만질 수 있어서 피부로 느껴지는 책. 그리고 완성된 작품도 좋지만 과정이 더 즐거운 책. (장수지)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책. (박경선)

커다란책은 내속에 숨겨진 나도 모르는 뭔가를 끄집어 내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아줌마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조합된 개성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책(조명희)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놀이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나의 상상력이 발휘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오면 나의 상상력이 나오는 공간 인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이 내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즐거움이 딱 요 시간에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나가면 일상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속에서 상상력이 발휘되는 분분들이 재미있는 놀이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대개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딱 집중해서 놀 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즐겁게 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에서 같이 작업할 때의 에너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여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커다란 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게 없었다면 한권 만들고 그만 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그런데 계속하는 거 보면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김미숙)

마음 속 커다란책 작품은 어떤 걸까?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의 작품이 〈넉점 반〉이었요. 한지에 묵을 써서 만들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한지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주인공도 너무 예쁘고 배경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 커다란책은 〈넉점 반〉.



저는 〈파리의 휴가〉예요 바느질을 해서 입체로 인형같이 예쁘게 만들어서 좋았어요. 대부분의 커다란책은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런 과정도 재미있고 좋았지만, 인형처럼 손으로 만들어서 꾸미는 재미도 좋았어요. 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파리의 휴가〉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나는〈눈오는 날〉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처음 시작 할 때는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진도도 너무 잘 나가서 중간에 잠시 휴식을 가지기도 하고 예쁜 가방을 하나씩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마무리 작업을 할 때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두루마리처럼 말았다가 펴는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구요. 책을 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책 모양으로 수정하게 됐어요. 눈이 내리는 장면에서 오리털을 붙여서 눈보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오리털이 막 날리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당황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책이 애착이 가요. 마무리가 어려웠지만 우리가 만든 책 중에 제일 커다란책 이기도 하니깐요.



나는 〈빨간끈으로 머리를 묶은 사자〉 모르고 시작했던 첫 작품이라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대충 커다란 책의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시작하고 보니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촌스럽고 요즘 만들면 정말 저렇게 안 만들 것 같고, 왜 저런 재료를 썼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때는 진짜 욕심이 많았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욕심도 많이 부렸던 책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이 더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나에게 커다란책은 OOO다

나에게 커다란 책은 휴식이다.
나에게 커다란 책은 고급스러운 취미생활이다.
나에게 커다란 책은 약속이고 친구이다.
나에게 커다란 책은 놀이터이다.
나에게 커다란 책은 힐링이고 나를 이루는 과정이다.

인터뷰를 함께 하신 분들 외에도
박경환, 안혜선, 이미영, 하경화님이
2013년 커다란책 동아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붓을 들 힘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커다란책 동아리원으로 함께 하실 수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평범한 이웃의 주인공, 평상너머

2013년의 마지막 평상너머가 12월 13일 〈놀음, 세상과 만나는 소통의 문〉을 주제로 부산 한살림 놀이선생님 최문경님을 모시고 열렸습니다. 청소년과 놀이로 만나며 몸으로 느끼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놀아보았습니다.



2014년 3월 6일에 열린 올해 첫 평상너머에는 유럽 단체배낭여행 인솔자 김현호님의 〈배낭을 벗 삼아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나는 여행〉 이야기를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 이웃의 평범한 일상과 삶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새해는 '말하는 대로' !



청마의 해, 갑오년 말띠 해를 맞아 말을 소재로 한 전시와 행사로 2014년을 시작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첫 번째 작은 전시회는 '말 하는 대로'라는 주제로 말이 나오는 그림책과 영화 DVD를 전시하고, 말 그림 그려보기, 책 속에 있는 말 그림 찾아오면 연체 풀어주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 되었답니다.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맨발동무 도서관 겨울영화제에서는 말을 주인공으로 하는 〈토니 스토리〉, 〈스피릿〉, 〈드리머〉 세 편의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3일 동안 꾸준히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나도 이제 학교 가요~!

2월 27일에는 예비초등학생 도서관 나들이가 열려 엄마가 읽어주는 빛그림책 보기, 학교선생님과의 만남, 학교선생님과 엄마의 만남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학을 앞둔 친구들과 엄마들의 두려움이 두근두근 설렘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입 중학생 학부모 도서관 나들이



3월 13일 저녁 8시에는 신입 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강좌 〈청소년에게 말걸기〉가 열렸습니다. 김해중앙여자중학교 상담교사로 재직 중이신 조양순 선생님이 초등학교와는 다른 중학교 생활 풍경을 잘 그려주셨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게 되는 중학교 1학년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 속에 새겨 보았습니다.

2014년 지원사업

맨발동무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관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고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우리는 찾아가는 찰방찰방 예술단'〉과 〈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마을 예술가와 떠나는 '내 안의 역사쓰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마을의 청소년과 어른들이 책과 예술로 한데 어우러지는 풍경, 기대해 봅니다.

낙동강길, 함께 걸어요

맨발동무도서관 자원활동가님들~! 낙동강 봄길 걷기, 함께 해요. 4월 4일(금) 오전 10시에 북구 보건소 다리 밑에 모여서 낙동강길 따라 걷다가 물금에서 맛난 점심도 함께 나눠요.

공동체 상영 합니다

4월 17일(목) 저녁 7시 30분에 올해 첫 공동체 상영을 합니다. 함께 보는 영화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의 직장에서 병을 얻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입니다.

그리미의 밑줄낭독회에 초대합니다

독서동아리 그리미에서 준비한 밑줄낭독회가 5월 16일(금)에 열립니다. 어떤 작품과 이야기가 도서관에 울려 퍼질지 기다려집니다.

부산학부모 300인 원탁토론 -부산교육, 학부모가 말하다

부산의 풀뿌리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이야기하고, 2014 교육감 선거를 희망의 선거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카페 "부산학부모 300인 원탁토론"에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세요.

재미있는 동아리에 함께 해요~!

맨발동무도서관에는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만드는 동아리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맨발동무도서관의 동아리와 함께 2014년을 시작해 보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찰방찰방 예술단	그림책 공부도 하고 찰방찰방 공연도 직접 해요. / 수요일 오후 1시
커다란책	오리고 붙이고, 커다란책 함께 만들어요! /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책보수	도서관의 책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시네북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만나며 두 배의 감동을! / 세째주 금요일 7시
그리미	책을 읽고 함께 마음 나누기 / 금요일 오전 11시
골방수다	직장인을 위해 특별히 만든 저녁 책모임 / 1,3 주 목요일 저녁 8시
시간여행	책을 읽고 그 역사 속으로 답사 떠나 봅니다. / 둘째 주 화요일 답사, 넷째 주 화요일 10시 책모임
새싹	그림책을 읽고 재미있는 활동도 하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동아리 / 금요일 오후 4시 30분
청소년 독서모임	중학생 이상 청소년을 위한 책동아리 / 토요일 오전 11시

맨발동무 도서관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도서관의 친구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몸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2013년 12월~2014년 2월)

4시 책읽어주기 박수진, 성은아

나누미/서가정리 김금란, 김란, 김미숙, 김상영, 김영임, 김예빈, 박민경, 박민경, 서정혜, 안향신, 이선희, 이은영, 정상인, 홍세진

라벨작업 강현미, 김예빈, 서정혜, 안향신

맨발극장 장준영, 황경미

서가제작/시설보수 권순용, 정철

서지입력 김수미

수서모임 김미숙, 안향신, 임창영, 안현주, 장윤정

찰방찰방, 초등/유아한반나들이 남윤경, 백자현, 이민아, 이선민, 이수정, 정현옥, 홍세진

달빛극장 장윤정

찾아가는 프로그램 김수미, 이선민, 이수정, 정현옥, 홍세진

자료보수/책싸기 김명남, 김미란, 김민정, 김영미, 손희숙, 이상희

커다란책 김미숙, 김미영, 김보미, 김영임, 김지영, 박경선, 박미정, 이미영, 이승주, 장수지, 정애자, 조명희, 최윤숙

꿈다락 장윤정

이야기봄 김금란, 김란, 김민지, 백시내, 장준영, 홍세진

기타(와요데이, 사무지원 등) 김민정, 김영미, 이상희

어린이/청소년 강호준, 김가빈, 김경임, 박소희, 박주은, 서상화, 신유진, 안혜선, 양현영, 오영림, 오채린, 오태린, 유희상, 윤규빈, 이시진, 이연주, 전희원, 조준우, 최수정, 최인서, 최재은, 하현승, 황인서

컴퓨터 유지관리에 공민기님과 마이다스정보시스템 한성윤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기증해 주셨습니다
(2013년 12월~2014년 2월)

■도서기증

고선일, 고은영, 김경미, 김태규, 김희선, 노경자, 박윤규, 부산시민센터, 생명평화결사, 신유철, 오동흠, 온새미학교, 윤주영, 이은영, 장임정, 조상희, 진예얼

■물품기증

강재은(옥수수, 사과), 강현미(반찬, 김치), 권민기(롤빵), 김미란(커피), 김미령(무말랭이, 화장품샘플), 김미숙(김치), 김선순(된장, 고추장), 김선옥(유자차), 랄랄라 어린이집 준비모임 박희정(귤1박스), 몸살림(식혜), 박미정(커피1박스, 호박식혜), 박현희(롤케익), 새마을금고(쌀10kg), 성은아(율무차, 커피), 윤주영(크레파스), 신건우(엄청 큰 강냉이 한자루), 이경화(커피2박스), 이명희(커피, 수제비누), 이상희(커피원두, 커피1박스, 핫초코 3통), 이선희(컵3개), 이은미(도넛), 장윤정(커피), 조명희(호박백설기), 조야미(생활용품), 푸른바다 아이쿱 생협(음료수 1상자), 화명복지관 복지사님(커피)

※이름이 빠지신 분은 꼭 연락주세요. 다음 소식지에 싣겠습니다. 맛있는 먹을거리와 귀중한 물품을 많이 가져다 주셨는데 다 챙겨 싣지 못해 죄송합니다.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2013년 12월~2014년 2월)

■새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2013년 12월 김영대, 오성혁, 오승준, 이연비

2014년 1월 김채연, 서인해, 성은아, 신선향, 신원희, 이명희

2월 구동관, 배진용, 설정희, 이선민, 이세경, 이태향, 임재윤, 최승진

■증액

고도예, 김옥자, 김현진, 박영수, 임유진, 장미정, 장서현, 장지원, 정현옥

■단체지원금

느티나무도서관재단/인터파크도서 친구도서관 지원사업 900,000원
부산시 사립도서관 지원금 30,000,000원

■정기후원(2014년 2월 28일 현재)

300,000원 세솔엔지니어링

200,000원 노국래, 초읍가족사랑요양병원

115,000원 이미남

100,000원 (주)두영씨앤알, 권순용, 동양스틸(주), 성림산업, 오즈어린이치과(구서), 해산한의원(양산), IMS Corporation

50,000원 강정각, 우종헌, 이상희, 이수정, 이은희, 참빛학부모회, 푸른바다 아이쿱 생협, 홍세진

35,000원 윤종경(공기청정기 렌탈요금)

30,000원 김경현, 김민지, 김선옥, 김용휘, 김철, 문정주, 박재석, 안기석, 이미애, 임유진, 정경환

20,000원 강재은, 고은영, 공인표, 권정미, 김미숙, 김송아, 김영대, 김현진, 박경영, 박영숙, 박한규, 배은정, 안현주, 윤경훈, 윤승희, 윤진희, 윤현숙, 이연옥, 이욱상, 이정민, 이창우, 이창원, 정현옥, 채경식, 최은경

15,000원 성은아, 추양식

10,000원 강상윤, 강창래, 강탑, 강현미, 강호열, 고강록, 고도예, 공나희, 공재현, 구희경, 권애경, 권오준, 권해정, 김경한, 김금란, 김단아, 김동희, 김명희, 김미경, 김미란, 김미영, 김민서, 김민준, 김부련, 김상영, 김설희, 김소연, 김소희, 김수미, 김영숙, 김옥자, 김은경, 김은규, 김정미, 김정호, 김지양, 김지연, 김지우, 김채원, 김태숭, 김필곤, 김한곤, 김현숙, 김희선, 남교욱, 남윤주, 노미애, 노현석, 노현창, 류도정, 류은진, 류종필, 문 흥, 박민경, 박서영, 박선재, 박영수, 박은주, 박정희, 박창희, 박철수, 박태운, 박현희, 박형주, 박효경, 박희영, 반경수, 백미연, 백복주, 백혜원, 변선남, 빈효리, 서인해, 서정숙, 설정희, 성기찬, 소담어린이집, 소용범, 손유진, 손은경, 손혜원, 송암종, 신선향, 신승학, 신은제, 심양진, 안미란, 안양수, 안재홍, 안향신, 양부석, 양윤실, 여태종, 오동만, 오석민, 오정현, 옥종석, 우인수, 유선화, 윤도경, 윤성아, 윤주영, 윤현진, 윤희종, 이만형, 이미영[화명2], 이병록, 이보람, 이봉우, 이선민, 이선희, 이성구, 이성민, 이성은, 이세경, 이수분, 이순일, 이승진, 이영진, 이윤남, 이은미, 이은주, 이재훈, 이정화, 이정희, 이지상, 이태향, 임순희, 임정옥, 임창영, 임희수, 장명희, 장미정, 장서현, 장지원, 장혜선, 전나영, 전수환, 정경미, 정대규, 정명선, 정성숙, 정애자, 정영숙, 정의현, 정이영, 정 철, 정혜숙, 조명희, 조민성, 조상희, 조양순, 조영화, 조오근, 조원영, 조은정, 조정아, 조 협, 주현자, 채병훈, 채유정, 채후불, 최귀순, 최성영, 최수원, 최숙진, 최순희, 최영아, 최옥연, 최은진, 최이숙, 최정순, 하석원, 하승우, 한연섭, 한지연, 허명남, 홍지형, 황경미

5,000원 강경애, 강미숙, 강민준, 강소영, 강헌식, 공민기, 구석태, 권규빈, 권규태, 김경숙, 김경희, 김명석, 김상우, 김윤성, 김은유, 김자윤, 김재우, 김정우, 김 진, 김진서, 김채연, 김한결, 김현경, 김현길, 남수경, 남언영, 남윤경, 류민임, 류수민, 류수한, , 문정림, 박경희, 박이제, 박종명, 박종은, 박주연, 박지현, 박철호, 백경옥, 서문교, 손민정, 송현복, 신지현, 심민희, 예나영, 오성혁, 오승준, 우인숙, 윤말임, 윤서준, 윤선생 부산북부센터, 이경화, 이기동, 이나경, 이명희, 이미영, 이미영[화명3], 이복순, 이수원, 이승민, 이연비, 이원희, 이유민[금곡], 이유민[화명1], 이진희, 이현주, 장혜성, 전상진, 전용선, 정규세, 정미숙, 정미정, 정영수, 정은교, 정은주, 정재일, 정찬주, 정해선, 조선영, 조인현, 조준우, 조해우, 주수현, 주지완, 지승민, 지승연, 진예슬, 진예얼, 최경원, 최명임, 최서홍, 최선영, 최숙인, 최예린, 최은혜, 하태욱, 한수미, 한진경, 허임정, 황혜승

3,000원 김수현, 김종남, 박민서, 박유진, 박이정, 박희원, 박희진, 신원희, 이은채

2,000원 권성규, 박윤아, 이진우, 장유나, 장유민, 정하나, 황성현

1,000원 강다인, 김민아, 김성현, 이진서, 이한승

■일반후원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300,000원, 성백석 50,000원, 영광도서 277,360원, 윤소연(장날) 500원